

정유사는 지금

은

전자들이 기름을 넣고 대금을 결제하기가 한결 편리해졌다. 정유회사들이 고정고

객확보차원에서 주유상품권을 앞다투어 발행, 판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여유있을 때 몇장 사두면 현금이 없을 때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들의 상품권 발행은 이미 지난해 6월 현대정유를 시작으로 호남정유가 발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유공과 한화, 쌍용이 각각 지난 7월과 8월에 상품권 발행 대열에 본격 참여하고 나섬에 따른 것.

이들 정유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형태 및 종류는 각사마다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형태는 종이식과 전자식으로 5천원권과 1만원권 같은 소액권 및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의 중고액 선물용 상품권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선 종이식 상품권은 유공, 한화, 쌍용, 현대정유가 발행하고 있으며, 호남정유는 종이식과 전자식을 함께 발행하고 있다.

액면가로는 유공, 한화, 쌍용, 현대정유가 소액권인 5천원권, 1만원권의 두종류로 호남정유는 종이식은 소액권으로 전자식의 경우 3만원, 5만원, 10만원권등 3종으로 발행, 판매하고 있다.

지난 해 6월초부터 발매에 나선 현대정유의 정액상품권은 5천원, 1

정유사들의 상품권 발행 러시

만원권등 2종으로 법인용은 밤색, 일반용은 녹색의 종이식 상품권이 다. 현대정유는 이들 2종의 상품권을 그동안 1, 2차에 걸쳐 15억원 상당어치를 발행, 판매에 나섰으며, 이중 약 60% 정도의 판매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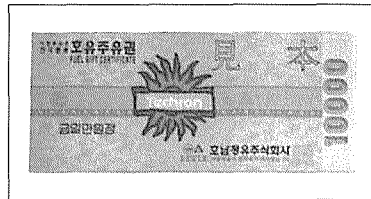
종이식 전자식을 포함 모두 다섯 종류의 상품권을 발매하고 있는 호남정유는 특히 전자식의 경우 계열 주유소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요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공중전화 카드와 형태 및 사용방법이 매우 유사하다.

이같은 전자식 상품권은 주로 기업의 영업용, 업무용차량의 주유용으로 사용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상품권 발행 대열에 가세한 유공은 5천원권, 1만원권등 2종의 종이식 상품권으로 1백30만장, 총 1백억원어치를 발행, 우선 전국 유공지사 및 계열대리점을 통해 판매에 나섰다.

특히 유공은 다소 늦게 상품권 발행 대열에 뛰어 들었으나, 전국 3천여개소에 이르는 계열주유소를 확보하고 있어 상품권 소유자로 하여금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워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화에너지도 지난 8월 16일부터 「한화주유상품권」 발매에 들어갔다. 한화에너지는 1차로 5천원권과 1만



▲ 정유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1만원권 주유상품권, 이밖에 각사는 5천원권 주유상품권도 발행하고 있다.

원권 1백억원어치를 발행했고, 이 상품권은 본사, 지사 및 대리점에서 우선 판매하고 이후 계열주유소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8월말부터 상품권 발행대열에 가세한 쌍용정유는 5천원권, 1만원권 2종의 종이식 상품권을 발행, 1차로 그룹사와 본사, 지사, 대리점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고 난 뒤 주유소 판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같이 정유사들이 앞다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은 우선 차량 소유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 수요가 안정적인데다 고정고객 확보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도 각종 행사시 주유대금의 할인혜택은 물론 주유시간 단축 차량관리 판촉물 기념품 선물용 등으로 사용에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권은 종이식인 경우 표시금액의 80% 이상 사용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카드식인 경우 사용금액이 카드에 표시되어 사용자에게 편리하다.

마이카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구두상품권, 백화점상품권에 이어 주유상품권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다. <金英哲>